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her's Satisfaction about Their Children's Household Work Performance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전공
조교수 차성란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Taejon Univ.
Assistant Prof. : Cha, Sung-Lan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문제 및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act of a number of family and household work variables on children's household work performance and their mother's satisfactions on that.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39 mothers and their children respectively living in Daejeon. Data were analys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1) A child's household work was influenced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status, a child's sex, her expectation on the child's household work performance, and the grade. (2) Mother's satisfaction on the child's household work was most influenced by the length of household work time and their spontaneity.

◆ key word: 가사노동, 가사노동시간, 자녀의 가사노동시간

I. 문제의 제기

자녀는 단순히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양육의 부담으로만 여겨져왔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가사노동 자

원으로서 간주되어 오지 못했다. 사회학에서의 일반적 가정은 자녀들이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그들의 새로운 경제적 역할은 학교에 다니고, 미래 노동력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다

(Morrow, 1996). 하지만 중등교육기에 있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분석해보면 이들이 시간제 고용,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적인 노동, 가족기업내에서의 노동, 가사노동 등 많은 노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Morrow, 1992).

자녀의 가사노동분담 문제를 다룬 많지 않은 연구들에서 자녀의 가사노동량은 매우 적다는 결과를 얻고 있지만, Solberg(198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남편보다 더 많은 량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가사노동분담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은 자녀중심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국의 가족구조상의 변화가 자녀의 가족내 역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Zelizer(1985)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자녀를 가사노동에 참여시키므로써 전인적 가정교육, 가정내 사용가능한 인적자원의 확장, 공동수행에 따른 정서적 이득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cHale 외(1990)는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므로써 책임감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부인과 남편 사이의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을 주요 주제로 다루어왔다.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이 관행인 사회환경에서 많은 연구들이 부부간 평등한 가사노동분담을 주제로 삼아 왔던 것은 가사노동 수행이 오직 가정관리자에게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가사노동 기여부분을 간과하도록 만들 수 있다(Brannen, 1995). 자녀들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연구는 물론 국외의 연구도 매우 적은 상태인(Zick & Allen, 1996) 것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므로써 어머니의 가사노동 부담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간접

적인 측정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의 가사노동량과 수행결과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해보므로써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족원들이 가사노동을 가족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의 가사노동참여

1)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개념적 구성

자녀는 '양육'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적용된다. 자녀의 의존성은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으로 체격이 작으며, 둘째, 사회적으로 아직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고, 셋째, 심리적으로 아직 발달이 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Morrow, 1996). 하지만 노년기의 의존성이 실제 생물학적인 사실이기보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구성된 압박감을 반영하는 것처럼(Walker, 1982), 이것은 나이가 든 자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Morrow, 1996).

실제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호혜적인 가족돌보기와 같은 가사노동이나 가족기업에서의 노동력 투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자녀가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교환적 또는 호혜적인 노동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Morrow(1996)는 자녀의 가사노동을 하나의 연속체로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는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자녀에서부터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연속선 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자녀는 양극단의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2)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가 적은 이유

농업경제사회에서는 자녀가 중요한 노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사회 및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자녀는 노동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녀는 특히 어머니의 시간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사노동의 자원으로 보다는 가사노동 자원을 소모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진다(Morrow, 1992). 자녀의 가족내 지위는 의존의 개념으로 언급되어지며, 자녀가 집을 떠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에서야 비로서 독립의 개념을 적용시킨다(Brannen, 1995).

농업경제사회에 비교할 때 오늘날 자녀들의 가사노동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잣대로 모든 자녀의 가사노동수행 실태를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Morrow(1992)는 자녀를 의존성과 독립성의 양극단의 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라 하면서 자녀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개념화할 것을 권하였다.

전반적인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은 자녀들을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노작의 이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자녀들의 가사노동참여가 매우 적은 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라마다 다소 특징적인 이유를 달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소극적 참여는 첫째,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에 그 이유를 돌릴 수 있다. 자녀의 대학입학은 가정생활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인 장단기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모든 사용가능한 시간을 공부에 전념하도록 요구하

며, 이는 발달과정상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학습되어야 하는 가사노동 수행능력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실제 국민생활시간조사(1996)에 의하면 평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대학생의 학습시간이 가장 짧으며, 다음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학습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문화적, 계층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자신이 여질러놓은 것을 자기가 치워야 한다는 규범은 개별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야기시킨 혼잡상태를 정리정돈하는 것은 집단주의 가족주의가 지배적인 경우이다. 실제 개인보다 집단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부과하는 가사노동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며, 이에 비해 북미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을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책임지어 준다(White & Brinkerhoff, 1981).

둘째로, 범문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이유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분담시키므로써 과중한 부담을 감소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가사노동을 감수하므로써 일종의 봉사를 통한 선의 실현(goodness of service)(Gilligan, 1982)을 하고자 하기 때문일 수 있다.

Zelizer(1985)에 의하면 미국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1800년대 초 이후 소년시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여성은 20세기 초 전업주부로서 전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인 이상은 오직, 그들을 정서적인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전 세대는 자녀를 도구적인 수단으로 고려했었지만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시간적인 지연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가족구조 및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가사노동 책임의 분담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이전 세대에 확립되어버린 규범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번째 가능한 이유는 자녀들이 학교공부, 숙제, 과외활동, 방과후 직업 등으로 성인들만큼 바쁜 일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

들의 바쁜 일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drich et al., 1982). 결국, 부모들은 어른의 책임을 바쁜 자녀에게 맡기므로써 과부담을 지우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Zelizer, 1985). 전업주부이거나 임시직을 가진 주부는 대부분의 가사노동 책임을 맡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느낄 것이며, 따라서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역할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취업주부는 직업과 가족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낄 수 있으며, 그래서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꺼릴 것이다.

Barnett과 Baruch(1987:122-143)는 어머니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여성의 가족역할에 덧붙여 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받는 것은, 여성은 자신의 역할 수행시 부정적인 결과를 얻어서는 안되며, 당연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는 문화적 기대를 받는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문화적 기대이다.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변명은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 너무 귀찮다'는 것이며 어머니 자신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더 쉽거나 더 빠르며, 원하는 표준에 따라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었다(Brannen, 1995).

2.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영향력

1) 사회적 자본 이론

Coleman(1990)은 그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자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의무, 기대, 정보, 규범, 허가, 권위, 조직적 구조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 하였다. 예를 들면 편부모 가정보다 양부모 모두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십대 자녀를 감독하며, 바람직한 시

간 사용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다(Zick & Allen, 1996).

Zick과 Allen(1996)은 부모로서 어머니가 행사하는 규범, 허가, 권위 등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어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투입요구 등의 복합적 기능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이 자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영향력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부모의 영향력

(1) 격려

부모의 격려(encouragement)는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녀가 실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상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영향력은 직, 간접의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Blair, 1992b). 직접적인 영향력은 부모 자신의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자녀에게 일을 부과하거나 다양한 보상을 주므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력은 부모 자신이 성역할유형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므로써 자녀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해주므로써 미치는 영향력이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모의 아들은 가사노동을 덜 한다. 반면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닌 부모의 딸들은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 또한 많은 량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아들보다 가사노동을 좀 더 많이 수행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아시아계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른을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사노동을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Brannen, 1995). 이에 비해 영국 부모들은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자극제로서 보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교환체계의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Brannen, 1995).

(2) 모델링

부모가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할 때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는 모델이 제공된다(Antil et al., 1996). 특히 동성의 부모-자녀 사

이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가정환경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성적인 가사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어머니는 딸에게 강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여성적인 일을 많이 수행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Antil 외(1996)는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이 단지 부모의 영향력 정도에서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형제자매의 성과 자녀의 형제순위에 따라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부모들은 첫째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것이 첫째 자녀를 격려하게 되어 실제, 첫자녀의 가사노동량이 많아질 수 있다.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가사노동 수행의 책임을 더 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자녀의 관계에서보다 어머니-자녀 사이에서 더 높은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다(Antil et al., 1996).

3. 관련변인 고찰

6세가 되면 이미 성에 따른 가사노동분담과 성별 분화에 대해 학습한다고 한다. 딸들은 전형적으로 아들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자녀들 중에서도 특히 성인의 딸은 많은 양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anik, 1986). Antil 외(1996)에 의하면 자녀의 성이 여성인 경우 남성에게 비해 여성적인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며, 남성적인 가사노동은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row(1996)의 연구결과 딸들은 아들들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의 31%, 딸의 53%가 어떤 종류의 일든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자녀들은 취업부모의 가사노동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Brody와 Steelman(1985)은 자녀의 성이 모두 여성이거나 모두 남성인 경우 자녀의 성에 따른 가사노동분담을 시키는 경향이 적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성에 적합한 가사노동분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

적인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Antil et al., 1996).

형제순위의 경우 첫자녀가 둘째 이하의 자녀보다 가사노동량이 더 많았다. 부모의 격려가 자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적인 가사노동 수행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Morrow, 1996).

Zick과 Allen(1996)의 연구결과 12세 - 17세 사이의 딸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는 더 컸다. 또한 편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사이에 자녀들의 가사노동시간사용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층 가정의 딸들은 상당한 정도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amble, 1979).

주부가 취업한 경우,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은 전업주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에 따라 남편과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이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한편, 자녀는 대체노동력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Bird & Ratcliff, 1990). 주부가 취업한 경우, 남편과 아들이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가사노동을 좀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다(Bird & Ratcliff, 1990). 물론 취업주부의 딸들은 가사노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여성적인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e & Brinkerhoff, 1981).

Brannen(1995)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집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그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고 한다(Brannen, 1995).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즉, 아버지의 가사노동참여는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아버지의 가사노동참여는 자녀가 성역할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자녀가 가사노동을 끝마치도록 좀 더 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Bird & Ratcliff, 1990). Bird와 Ratcliff (1990)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할수록 자녀의 가사노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아들의 성역할행동이 아버지의 성역할행동 및 태도와 일치할 때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두가지 방향의 가능한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만 9 - 10세에 이르면 장난감 치우기, 잡자리 정돈하기 등과 같은 간단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시작하게 된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정도가 높아져 부모의 가사노동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White & Brinkerhoff, 1981). 연령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변명으로 이용된다(Brannen, 1995).

다른 한편으로 막내자녀연령에 따라 부모의 가사노동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자녀가 노동에 대한 요구 또는 수요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볼 때 막내자녀의 연령은 부모의 가사노동 부담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수의 증가는 가사노동량을 증가시키며, 가사노동의 복잡성 또한 더해진다(Walker & Woods, 1976). White와 Brinkerhoff(1981)는 가족수가 많아지면 부모는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Goodnow와 Delaney(1989)는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에 비해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아들보다는 딸이 더 많이 수행하며, 나이가 많은 자녀일수록, 양부모가족에 비해 편모가족의 자녀가 더욱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nen, 1995).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결과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부와 그 자녀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전시 동구, 유성구, 서구에 소재한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그리고 대학교 1곳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과 어머니용 설문지 각 2부씩을 배부하였으며, 자녀용 설문지는 배부된 장소에서 직접 기재후 바로 회수하였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집에서 작성토록 한 후 학교를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자료조사 기간은 98년 11월 18일부터~12월 2일까지였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것은 239부였다.

2) 조사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문항의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자녀의 가사노동량을 측정하는 문항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녀가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거나,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것, 또는 자신이 식사하기 위해 상차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자신만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사노동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지에 관한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요구를 포함 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원들을 위한 의, 식, 주, 정원손질 및 청소, 자동차 및 애완동물 관리, 장보기, 관공서 출입, 가족돌보기, 기타 심부름하기 등

〈표 1〉 측정도구

변 인	측 정
자녀관련 변인 성별 학년 형제순위	남 = 0, 여 = 1 중학교 1학년 = 1 ~ 대학교 4학년 = 10 장남, 장녀 = 1 차남, 차녀이하 = 0
가정환경 변인 연령 취업여부 근무시간 건강 가족수 막내자녀연령 주택형태	세 비취업 = 0, 취업 = 1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매우 건강이 나쁨 = 1 ~ 매우 건강하다 = 5 명 세 단독주택, 상가주택, 기타=0, 아파트 및 연립주택 = 1
가사노동 관련변인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자녀의 가사노동수행 자발성 자녀의 가사노동량 아버지의 가사노동량	도움을 전혀 바라지 않음 = 1 - 매우 많이 돕기를 바램 = 5 전혀 안함 = 1, 항상 시켜야만 함 = 2 - 항상 자발적으로 함 = 6 거의 하지 않음 = 1, 한달에 한두번 정도 =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 3, 일주일에 두세번 = 4, 거의 매일 = 5 전혀 안 돕는다=1 ~ 매우 잘 돕는다 = 5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 양에 대한 만족도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 1 ~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 = 1 ~ 매우 만족 = 5

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지에 관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AS를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t-검증, 분산분석, 중회귀분석 등을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 자녀의 가사노동 실태

자녀의 가사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량의 평균값(표 3)을 살펴보았다. 〈표 3〉에 의하면 자녀의 전체 가사노동량 평균은 1.99로 응답가능범위 1에서 5의 중앙값 3보다 상당히 낮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의 평균은 2.61이었고,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량의 평균은 1.66으로 후자의 경우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에 비해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준편차 역시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의 경우가 0.83으로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량의 표준편차 0.49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은 개인간 차이가 많지 않으나 이에 비해 자신을 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

변 인	구 분	빈 도(백분율)			
자녀관련 변인	성별	남	106(44.4)		
		녀	133(55.6)		
	학년	중학교	59(24.7)		
		고등학교	125(52.3)		
		대학교	55(23.0)		
형제순위	장남·장녀	93(38.9)			
	차남·차녀이하	146(61.1)			
가정환경 변인	연령	40세이하	27(11.6)		
		41~45세	102(44.0)		
		46~50세	79(34.1)		
		51세 이상	24(10.3)		
		취업여부	취업	65(27.2)	
		비취업	174(72.8)		
	건강	나쁘다	38(15.9)		
		보통이다	77(32.2)		
		좋다	124(51.9)		
	주택형태	단독주택, 기타	93(39.0)		
		아파트, 연립주택	146(61.0)		
	가족수	4인 이하	123(51.5)		
		5인	91(38.1)		
		6인 이상	25(10.4)		
		막내자녀연령	13세이하	27(11.3)	
		14~16세	73(30.5)		
		17~19세	102(42.7)		
		20세 이상	37(15.5)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대값
	가사노동 관련변인	자녀가사노동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2.59	0.97	1.00
자녀 가사노동수행 자발성		3.49	1.05	1.00	6.00
자녀의 가사노동량		45.87	12.93	23.00	88.00
아버지 가사노동량		2.84	1.10	1.00	5.00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	노동량에 대한 만족도	3.14	0.79	1.00	5.00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	3.45	0.78	2.00	5.00

한 가사노동은 적게 수행하는 경우에서부터 매우 많이 수행하는 경우까지 가사노동 수행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가사노동량 실태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4) 자녀의 가사노동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과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 모두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3〉 자녀의 자신과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량 평균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	2.61	0.83	1.00	4.88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량	1.66	0.49	1.00	3.40
자녀의 전체 가사노동량	1.99	0.56	1.00	3.83

〈표 4〉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량의 차이

구 분		자녀의 가사노동	자신위한 노동	가족위한 노동	자녀의 전체가사노동
성 별	남학생(106)		2.34	1.52	41.53
	여학생(133)		2.83	1.77	49.32
	t		4.76***	4.37***	4.96***
형 제 순 위	장남·장녀(93)		2.67	1.70	46.91
	차남·녀이하(146)		2.58	1.64	45.20
	t		0.88	0.97	1.00
학 년	중학생(59)		2.64 B	1.76 A	47.53 B
	고등학생(125)		2.40 B	1.52 B	41.96 C
	대학생(55)		3.07 A	1.90 A	52.96 A
	F-value		13.60***	14.59***	16.34***

*P<.05, **P<.01, ***P<.001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과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직접 비교를 하기 위해 각각의 문항수로 나누었다. 한편 전체 가사노동은 각 집단간 차이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가사노동에 관한 23개 문항의 합으로 제시하였다.

자녀의 형제순위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의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즉 장남이나 장녀라 해서 차남이나 차녀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녀의 경우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 자녀의 가사노동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은 대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이하의 집단에 비해 많은 량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노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이나 대학생과 비교할 때, 자신을 위한 노동과 가족원을 위한 노동 모두에서 가장 노동량이 적었다. 특히 가

족원을 위한 가사노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대입을 위한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3.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가 다음의 〈표 5〉와 같다. 자녀의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은 자녀의 가사노동 자발성과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성별과 학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F= 13.60, P<.001). 즉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은 자녀가 가사노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수록, 어

〈표 5〉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변 인	자신위한 노동량		가족위한 노동량		전 체	
	B	B	B	B	B	B
자녀관련 변인						
성별	2.47	0.19***	2.71	0.19***	5.18	0.20***
학년	0.46	0.16*	0.33	0.11	0.78	0.14*
형제순위	-0.09	-0.01	-0.24	-0.02	-0.34	-0.01
가정환경 변인						
근무시간	0.00	0.09	0.00	0.14*	0.01	0.13*
건강	-0.73	-0.09	-0.73	-0.09	-1.46	-0.10
가족수	-0.23	-0.03	0.39	0.04	0.16	0.01
막내자녀연령	-0.43	-0.06	-0.78	-0.10	-1.21	-0.09
주택형태	-1.04	-0.07	-2.16	-0.15**	-3.20	-0.12*
가사노동 관련변인						
자녀가사노동 기대	1.48	0.22***	2.16	0.29***	3.63	0.28***
자녀가사노동 자발성	2.37	0.38***	1.83	0.27***	4.20	0.35***
아버지 가사노동분담	0.05	0.01	0.26	0.04	0.30	0.03
상 수	7.50		9.97		17.46	
F-value	13.60***		13.79***		17.33***	
R ²	0.40		0.41		0.46	
Adjusted - R ²	0.37		0.38		0.44	

*P<.05, **P<.01, ***P<.001

머니가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할수록, 여학생인 경우에, 학년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정환경 변인은 단 한 변인도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량은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가정환경적 요인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가사노동은 자녀가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을 잘 수행하는 부지런한 인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머니가 언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해야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을 위한 자녀의 가사노동량은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가사노동 자발성, 성별, 주

택형태,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로 높았다(F=13.79, P<.001). 즉, 가족을 위한 자녀의 가사노동량은 어머니의 자녀가사노동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녀 자신이 가사노동에 자발적일수록, 여학생인 경우에, 주택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과는 달리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량은 자녀의 자발성보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기대하는가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는 어머니의 의식적인 자녀에 대한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어머니가 가정환경 속에서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기대하므로써, 자녀는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주택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상가주택, 기타 형태의 주택이 주택구조상 더 많은 량의 가사노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로 보인다.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의 경우 어머니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오랜 시간 근무로 어머니의 사용가능한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 모두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자발성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긴 시간 수행하기 어려운 가정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녀는 가사노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전체 가사노동량은 자녀의 가사노동 자발성, 어머니의 기대, 자녀의 성별, 학년, 어머니의 근무시간 및 주택형태에 영향을 받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F=17.33, P<.0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량에 대한 만족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만족도는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 자발성, 막내자녀연령, 어머니의 건강, 어머니의 자녀가사노동에 대한 기대, 자녀의 학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자녀가 가사노동을 많이 수행할수록, 자녀가 자발적으로 수행할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가 건강할수록, 자녀가사노동에 대한 기대가 적을수록, 자녀가 저학년일수록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귀모형의 총 설명력은 30%(F=8.01, P<.001)였다.

어머니의 만족도가 자녀의 가사노동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 어느 것보다 자녀의 절대적인 가사노동량이 많아 어머니의 노동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때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량에 대한 만족의 중회귀분석

변 인	B	B
자녀관련 변인		
성별	-0.08	-0.05
학년	-0.06	-0.18*
형제순위	-0.01	-0.01
가정환경 변인		
근무시간	-0.00	-0.02
건강	0.21	0.22***
가족수	-0.08	-0.08
막내자녀연령	0.19	0.23**
주택형태	0.08	0.05
가사노동 관련변인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	-0.17	-0.21**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 자발성	0.23	0.31***
아버지 가사노동분담	-0.00	-0.01
자녀의 가사노동량	0.02	0.39***
상수		1.24
F-value		8.01***
R ²		0.30
Adjusted - R ²		0.27

*P<.05, **P<.01, ***P<.001

어머니가 자녀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 가사노동 수행에 문제가 없을 때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녀가사노동량이 동일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어머니의 만족도는 막내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막내자녀연령과 자녀의 학년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가능한 추측은 막내자녀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는 신체적으로 성장하여 점점 더 가사노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이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이나 개인적인 활동량의 증가로 가사노동의 수행 정도가 감소하여 어머니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사노동량이 감소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비해 자녀의 가사노동 증가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머니의 만족수준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5.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

자녀 가사노동 수행결과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 자발성이 높을수록, 여학생인 경우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의

<표 7>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의 중회귀분석

변 인	B	B
자녀관련 변인		
성별	0.22	0.14*
학년	-0.03	-0.08
형제순위	-0.18	-0.11
가정환경 변인		
근무시간	-0.00	-0.03
건강	-0.02	-0.02
가족수	-0.00	-0.00
막내자녀연령	0.09	0.11
주택형태	0.08	0.05
가사노동 관련변인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	-0.02	-0.02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 자발성	0.16	0.21**
아버지 가사노동분담	0.05	0.07
자녀의 가사노동량	0.00	0.14
상 수	20.9	
F-value	3.32***	
R ²	0.15	
Adjusted - R ²	0.11	

*P<.05, **P<.01, ***P<.001

총 설명력은 15%(F=3.32, P<.001)로 나타났다.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의 가사노동 자발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자녀 자신이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경향을 띠며, 따라서 수행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 바람직한 결과보다는 부과되는 가사노동 책임을 단순히 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인 경우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여전히 모녀 사이의 가정중심성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여학생은 가사노동을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로 받아들이며, 그렇지 않은 남학생에 비해 가사노동의 경험이나 능력향상에 대한 의식이 높아 좀 더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어머니의 자녀가사노동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관리자의 과중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간과되어 왔던 자녀의 가사노동실태, 자녀의 가사노동량과 가사노동 수행결과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가사노동이 가족원 공동의 책임이라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금껏 자원으로 인식되어오지 못했던 자녀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정 내에서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량은 매우 적으며, 특히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보다 가족원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들이 가사노동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모든 가족원들이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현대의 가족생활에서 자녀 중심주의적 사고와 생활양식이 이같은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다소 가사노동량이 많게 나타났던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거의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사노동량 평균점이 상당히 낮았던 것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거의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청소년 자녀의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자녀세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가사노동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의 가사노동 전담자로서의 역할이 딸에게 학습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대학입시가 가족원들의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별 가사노동량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가사노동량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자녀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 수행은 한 가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용가능한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자녀의 개인적인 인성 또는 부모가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훈육방식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섯째, 이에 비해 가족원을 위한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사용가능한 인적자원이거나 가사노동 요구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어져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제약울 느끼는 경우,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사노동량이 많은 경우, 자녀들은 가족원을 위한 가사노동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일곱째, 자녀중심성이 사회 전반의 수용된 가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많은 량의 가사노동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동으로서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그리고 많은 량의 가사노동을 수행해 준다면 어머니들의 자녀 가사노동량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역시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부과시키는 것을 꺼리며, 봉사를 통한 선의 실현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서 자녀의 자발성과 어머니의 자녀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기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두 요인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녀중심적 가족가치관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 사고의 전환, 여성들 자신의 성차별적 태도의 근대화, 우리의 왜곡된 교육적 가치관의 변화, 모든 가족원들의 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사노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내용적으로는 여성의 삶이 어머니로서 희생하는 삶 이외에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고, 자녀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며, 자녀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나 보육시설의 교과과정을 통해 가사노동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이론강의 외에 가사노동 관련 실험 및 실습, 어머니-자녀의 역할전환놀이 등 연령에 맞는 다양한 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자발적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실천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원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사조력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설문문항에는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와 가사조력자 이용시간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전체 표본 중 92.9%의 응답자가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결국 이용시간이 '0'인 경우가 92.9%로 나타나 가사조력

자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조사지역의 가정경제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러나 실제적인 조사대상 가정의 실태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형제순위가 자녀의 가사노동량이나 어머니의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자녀수의 감소로 형제순위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가족가치관에 비추어볼 때 특히 가사노동에서는 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의 기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사노동 참여정도,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하거나 또는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나 가족원들 사이의 가사노동 공동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사노동 수행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기대수준, 또는 적극적으로 자녀를 가사노동에 참여시키는 어머니의 특성- 예를 들면 성역할태도 -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련, 채옥희(1996). 어머니와 딸의 가사노동 태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7집. 153-166.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한국방송공사(1996). 국민생활시간조사.
- 이연숙, 박경은(2000).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29-44.
- 이정수(1984). 대학생의 생활행동의 시간적 분석-가사노동의 기여도. 대한가정학회지 22(1). 103-132.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til, J. K. J. J. Goodnow, G. Russell, and S Cotton (1996). The Influence of the parents and family context on children's involvement in household tasks. *Sex Roles* 34. 215-236.
- Barnett, R. C., & Baruch, G. K.(1987). Social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R. C. Barnett, L. Biener, and G. K. Baruch(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Free Press. 122-143.
- Bird, G. W. & Bonita B. Ratcliff(1990). Children's participation in family tasks: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reports, *Human Relations* 43(9) 865-884.
- Blair, S.C.(1992). The Sex-typing of children's household labor: Parental influence on daughter's and son's house work. *Youth & Society* 24. 178-203.
- Brannen, Julia(1995). Young people and their contribution to household work. *Sociology* 29(2). 317-338.
- Brody, C. & Steelman, L. C.(1985). Sibling structure and parental sex-typing of children's household tasks. *JMF* 47. 265-273.
- Coleman, J. S.(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 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 Gamble, R.(1979). *Chelsea childhood, an auto biography*, London; BBC Ariel Books.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now, J. and Delaney, S.(1989). Children's

- household work: Differentiating types of work and styles of assignment,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09-226.
- Lackey, Pat N.(1989). Adults' attitudes about assignments of household chores to male and female children. *Sex Roles* 20(5/6). 271-280.
- McHale, Susan M., W.T. Bartko, A.C. Crouter, and M. Perry-Jenkins(1990). Children's housework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ex-role behaviors and attitudes. *Child Development* 61. 1413-1426.
- Medrich, E. A., Roizen, J., Rubin, V., & Buckley, S. (1982). *The Serious Business of Growing Up*.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Morrow, Virginia(1992). A sociological study of the economic roles of childre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irmingham and cambridgeshire, Unpublished Ph.D.thesis.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 of Cambridge.
- Morrow, Virginia(1996). Rethinking childhood dependency: Children's contributions to the domestic economy. *The Sociological Review* 58-77.
- Sanik, M. & stafford, K.(1986). Boy/girl differences in household work. *JCSHE* 10. 209-219.
- Solberg, A.(1988). The Everyday of life of norwegian children; Paper to Third International Workshop on Ethnography of Childhood, Cambridge.
- Walker, A.(1982). Dependency and old age, *I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16(2). 115-135.
- Walker, K. E., & Woods, M. 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 C.: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White, L. K. and Brinkerhoff, D. B.(1981). Children's work in the family ; its significance and measuring. *JMF* 43 789-798.
- Zelizer, V. A.(1985).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New York: Basic Books.
- Zick, C. D. and C. R. Allen(1996).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status on the time adolescents spend in productiv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45. 65-71.